



남구청에 분향소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전사한故 서정우 하사의 분향소가 24일 오후 부모 거주지인 광주 남구청 앞 마당에 차려져 시민들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만원의 입’ 또 물의

북 연평도 포격 빚대 전라도 비하 발언

보수 성향의 군사평론가 지만원(69)씨가 또 전라도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10·29의 전라도 개××과 11·23의 북한 개××이’란 제목으로 연평도 포격 참사에 대해 말하며 “북한의 뒤집어씌우기 DNA가 전라도 DNA와 일치한다”라고 강변했다. 지씨는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남한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하면서, “5·18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와서 저지른 만행을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안양지법에

서 있었던 ‘지씨의 5·18 단체 명예훼손’ 재판에서 고소인인 5·18 단체 회원들과의 마찰을 빚대어 말하며, ‘전라도 개××과 북한 사람들의 개××을 달리 점잖게 표현할 용어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씨는 지난 17일故 김대중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공주시민이 폭도로 나선 것’, ‘북의 난동’ 등 5·18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5월 단체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아까운 내 아들...” 통곡... 혼절

서하사·문일병 부모들 “사망 경위 왜 숨기나” 군 당국에 불만도

“휴가 때 맛있는 것 못해줘 미안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편히 눈감고 쉬거라” 24일 서하사의 부모 등 유가족은 각각 광주와 군산 출신인 해병 서정우(21)하사와 문광욱(20)일병 등 2명을 비롯한 4명이 숨지고, 군인과 민간인 20여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전사한 장병의 부모는 여전히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말년휴가 당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하사의 부모는 건강할 모습으로 내려올 날만을 기다리던 중 비보를 받은 상태여서 충격은 더욱 컸다.

김씨는 또 “3학년 담임을 맡은 탓에 시간이 없어 휴가 나온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가슴이 무너진다”며 “정우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슬픔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숨진 아들을 생각하며 시종일관 흐느끼던 김씨는 “가슴이 아파 더 이상은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며 오열했다. 문일병의 부모 역시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문일병은 3개월 전 해병대에 입대해 차 집에 왔던 내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선한 데 사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다고 울먹였다.

전화통화에서 “지난 일요일 광욱이와 통화할 때만 하더라도 ‘12월에 아버지가 면회를 가겠다’는 말에 ‘내년 1월이면 첫 휴가를 갈 수 있을 테니까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늘름한 아들이었는데...”라고 말했다. 문씨는 또 군 당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씨는 “광욱이가 언제, 무엇을 하던 중,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군은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씨는 감정을 추스른 뒤 “사상과 이념, 총성이 없는 곳에서 편하게 잠들기를 바란다”며 숨진 아들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남겼다. /김호기 기자 kimho@kwangju.co.kr

故 서정우 하사 투철한 군인정신 ‘귀감’

휴가 떠나던 중 포탄 떨어지자 긴급 상황 부대 알리려다 참변

북한의 연평도 해안 포격으로 전사한故 서정우 하사의 투철한 군인정신이 귀감이 되고 있다. 서 하사는 휴가를 떠나던 중 포탄이 떨어지자 긴급 상황을 부대에 알리려다 참변을 당했다. 24일 해병대에 따르면 서 하사는 23일 오후 다음달 6일까지 마지막 병장 휴가를 가기 위해 연평도 선착장에서 인천으로 항하는 여객선에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하

늘에서 떨어지는 포탄을 목격하는 선착장에서 부대로 황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군의 포탄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전사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서 하사는 연평부대 중화기 중대의 최고 공용화기 사수로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휴가를 포기하고 부대로 복귀하다 전사했다”고 밝혔다. /연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북 연평도 포격’ 인터넷 유언비어 수사 ‘예비군 동원령 메시지’ 20대 2명 검거

검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의 출처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예비군 징집·동원령’ 문자와 같이 전기통신(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근거 없는 ‘음모론’이 제기될 경우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국가보안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휴교·휴무령, 사재기 조장 등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가 적발되면 침수부나 형사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김모(28)씨와 윤모(25)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연동률기자

멤버십 회원 모집 7억 사기

전남경찰 2명 검거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멤버십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가입비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주유할인 멤버십 회원들의 신용카드로 회원가입비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조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속여 500여명의 신용카드로 회원비를 결제했다. 김씨 등은 위조한 전표를 제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서 대낮 택시강도

현금·택시 빼앗아 도주

24일 오전 11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한 농로에서 김모(56)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남성 승객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고 강도로 돌변해 현금 10만원 가량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광산구 월계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김씨의 택시에 탑승해 “북구 생동마을로 가자”고 말한 뒤 택시가 인적이 드문 농로로 들어서자 좌에서 흉기를 꺼내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흉기를 발견한 뒤 택시에서 내려 도망쳤으며, 택시는 농로에서 약 5km 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발견됐다. /김호기 기자 kimho@kwangju.co.kr

전국 돌며 미성년자 27명 성폭행

전북경찰, 20대 구속

전주와 서울 일대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연해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모(29·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 17일 밤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병원에서 “엄마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A

오현섭 전 여수시장

정자법 위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4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을 제3자뇌물교부 및 정지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N사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하다 올 5월 자신의 사돈 주모씨를 통해 시의원 10명에게 500만원씩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여수를 지역위원회에 불법 선거자금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N사 등 업체들로부터 모두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시주 봐줄게” 접근 귀금속 슬쩍

○...술집과 노래방 여주인 등에게 “시주를 봐주겠다”고 접근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서행.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0일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김모(45)씨에게 접근해 “금불이가 몸에 좋지 않다”고 현혹해 반지를 빼게 한 뒤 훔치는 등 12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광주와 목포, 대전 등지의 호프집과 노래방 등을 돌며 여주인들을 상대로 뛰어난 언변을 구사해 시주를 봐주는 척하면서 시금속을 탁자 위에 놓게 한 뒤 잠시 환호를 퍼는 사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쳤다는 것. /이종철기자 golee@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